

보도시점 2024. 1. 29.(월) 12:00 (2024. 1. 30.(화) 조간)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업종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증가 (2.0%)	증가 (6.1%)	유지 (0.9%)	감소 (-2.1%)	증가 (2.4%)	증가 (2.4%)	증가 (1.9%)	유지 (-1.4%)	유지 (0.7%)	유지 (-0.2%)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출이 2024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이며 국내 친환경 설비 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3년에 가스운반선 등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3년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PC 시장은 AI PC 훈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섬유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상반기에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전세계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 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철강** :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 및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여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용 강재 수요 감소가 철강 수출수요 증가를 상쇄하여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기반 철강 생산에서 탄소중립의 그린스틸 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와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

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 현상 유지와 수출 성장 기조 유지로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4년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런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2024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업종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2천 명) 감소할 것 예상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 2024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만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붙임 :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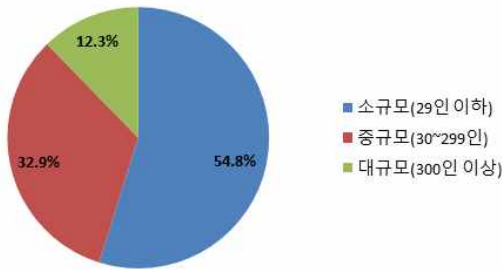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책임자	팀 장	홍현균 (043-870-8224)
		담당자	부연구위원	정재현 (043-870-8380)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담당자	실 장	이기환 (02-6009-3230)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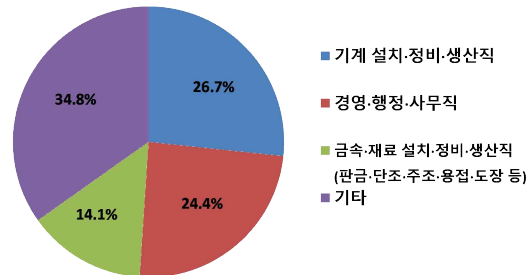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하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82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279천 명)의 5.4%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7.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9.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7%), 경기 시흥시(4.1%), 경남 김해시(3.8%), 부산 강서구(3.3%), 경남 창원시 성산구(3.3%), 인천 남동구(3.0%),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6.7%), 경영·행정·사무직(24.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4.1%)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790천 명) 대비 4.7%, 37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5.3천 명, 채용인원 32.6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는 12.6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27.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p 낮고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16.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0%)',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0%)'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4.9%), 제조 단순직(1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17.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8.1%), 경남(12.2%), 경북(8.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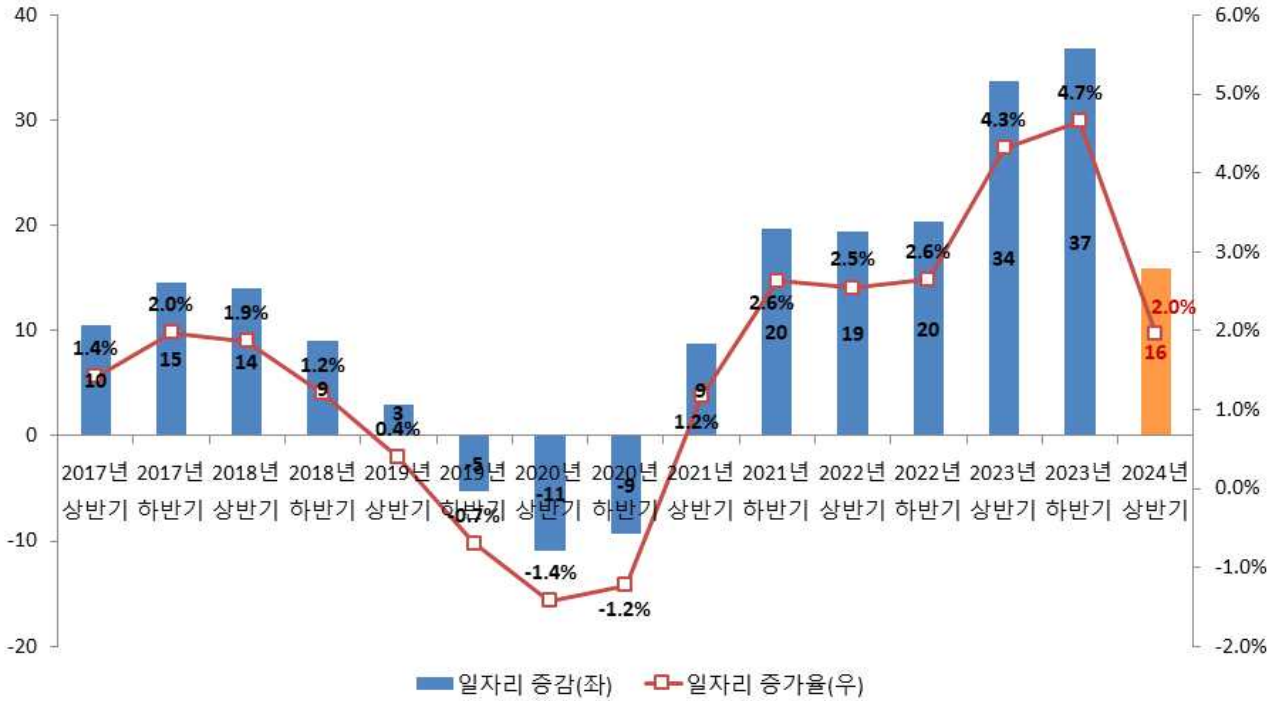
경기전망

- (종합) 2024년 기계산업은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건설 인프라, 수요산업 생산공장 설립, 해외 플랜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세계 경제의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질 것으로 보임
- (수출) 주요 선진국, 신흥국의 투자 수요 확대 지속
 - 미국,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계 완제품 수요 증가 예상
 -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등 수주 호조
 - 그러나, 주요국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 다소 제약
- (내수) 일부분 설비투자 수요 확대에 감소세 완화 전망
 -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설비 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증가 예상
 -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투자의 대폭 증가는 어려우나 점진적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에 감소세 완화 전망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4	-1.2	1.2	2.6	2.5	2.6	4.3	4.7	2.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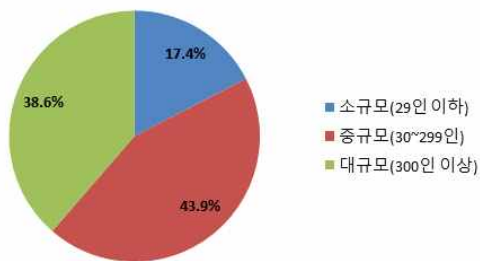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기계 업종은 전년 동기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0%(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남, 경북, 충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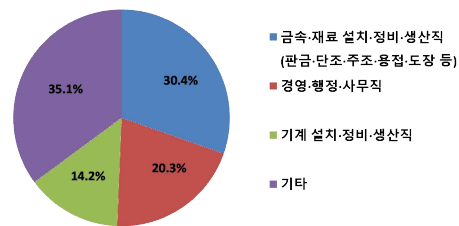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하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0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279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4.5%), 울산 동구(29.0%)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4.2%), 부산 영도구(3.4%), 경남 창원시 진해구(2.3%)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0.4%), 경영·행정·사무직(20.3%),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2%)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99천 명) 대비 9.7%, 1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에서 고용이 증가했으며,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크게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9천 명, 채용인원 3.9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0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20.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0%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9.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2.4%)',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24.3%)',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4.9%)'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6.9%), 제조 단순직(13.1%), 건설·채굴직(12.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울산(47.4%), 경남(33.2%), 전남(13.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2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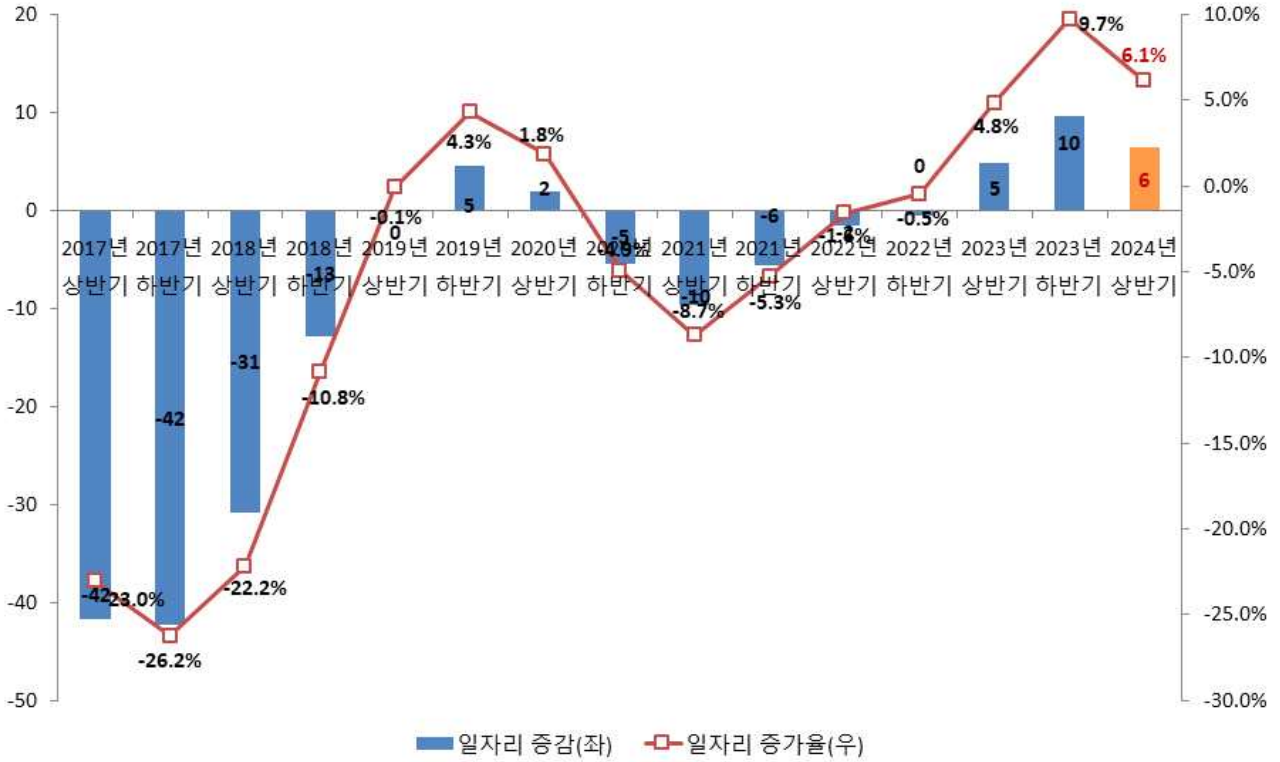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주) 세계 경기하방 기조에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글로벌 발주 전망은 2023년 4,170만 CGT에 비해 소폭 상승한 4,310만 CGT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조선업계도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LNG운반선, LPG운반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발주 강세이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발주 포함세
 - 한국 2023년 전세계 고부가가치선 수주 58.7% 기록, 가스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선 분야의 우위 지속
- (건조) 2023년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가스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건조량 증가가 전망됨
 - 2023년 국내 조선소는 전세계 건조능력의 28%를 차지
- (수주잔량)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량 증가로 2023년 12월 현재 국내조선소는 39.3백만 CGT의 안정적 수주잔량을 유지하며 약 3년치 이상에 해당되는 일감을 확보
- (선가) 2023년 신조선가는 발주 감소 및 해운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포함세가 전망됨
 - 가스운반선의 가격지수의 상승을 이어가고 벌크선,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의 상승세는 둔화 전망
- (수출) 2024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약 242.2억 달러로 전망됨
 - LNG선 수주 및 건조 우위에 따른 수출증가세 전망
 - 2023년 선박류 수출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19.7억 달러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8	-4.9	-8.7	-5.3	-1.6	-0.5	4.8	9.7	6.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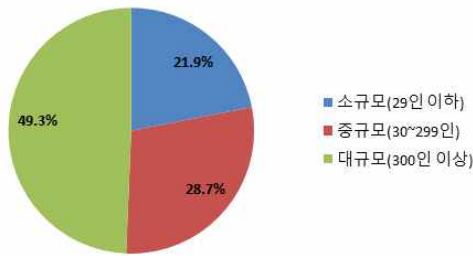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1%(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울산, 경남, 전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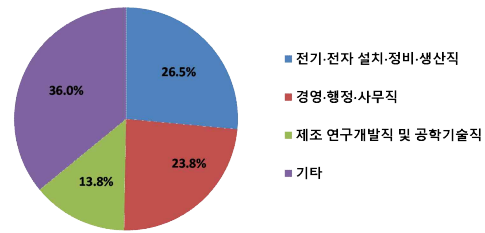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3년 하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54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279천 명)의 4.9%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7.8%), 전기장비 제조업(3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8.7%), 서울 영등포구(10.1%), 경기 용인시 기흥구(5.3%), 경기 화성시(3.8%), 경기 안산시 단원구(3.3%)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6.5%), 경영·행정·사무직(23.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기술공학직(13.8%)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746천 명) 대비 1.1%, 8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9.0천 명, 채용인원 23.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5.9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20.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8.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2.5%)'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7.4%), 경영·행정·사무직(13.7%),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1.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4.8%), 경북(15.8%), 충북(9.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0.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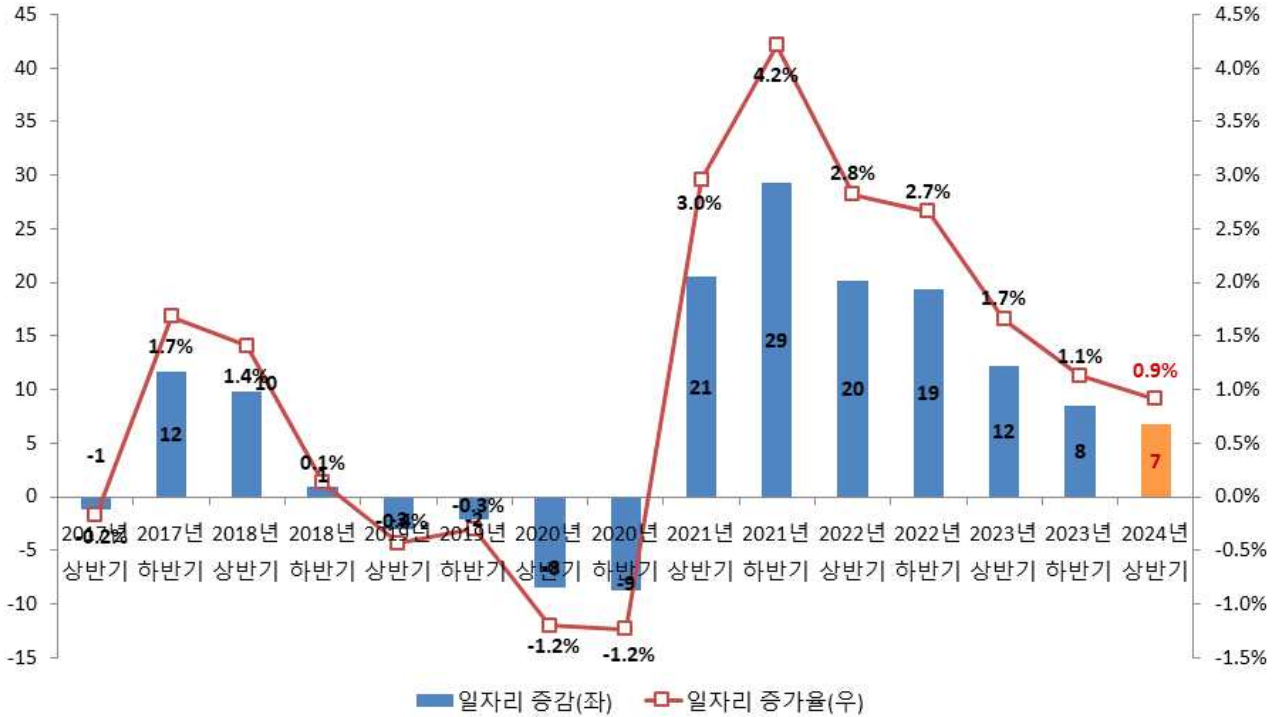
경기전망

- 글로벌 IT 제품 수요의 증가와 기저효과로 IT신산업군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 산업군 전체로는 11.4% 증가 전망(산업연구원, 2023.11월)
 -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여부가 변수이나 전년 대비 12.7% 수출 증가 전망
 - * 가전 수출은 주요국 소비심리 회복과 신형권의 경제성장 호조, 친환경·고효율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전망
 - (휴대폰) 2024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하락폭 축소 후 상승 전환을 기대(TechInsights, 2023.12월)
 - * 주요 업체의 재고 정상화, 인플레이션 완화, 5G 적용 확대,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 및 상승 궤도 진입을 기대(11억 7,840만 대, 3.4%↑)
 - (SSD) 2023년 SSD 시장은 가격 및 수요 회복 등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Gartner, 2023.12월)
 - * 낸드 공급업체의 강력한 가동률 인하 정책 등으로 2023.4분기부터 SSD 가격 회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생성형 AI 등의 발전으로 글로벌 IT 업체들의 SSD 구매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는 흐름
 - * 또한 2024년 PC 시장의 수요 회복 기조와 더불어 생성형 AI, IoT, 자동차의 전자화 등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폭증 등으로 출하량(4억 6,533만 대, 10.1%↑) 및 매출액(338.3억 달러, 55.2%↑)은 동반 반등하며 성장 반열에 다시 올라설 것으로 관측
 - (PC) 2024년 PC 시장은 AI PC 훈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 반열에 진입할 전망
 - * 세계 경제 불안 요소들이 여전하나 비즈니스용 윈도 11 업데이트, 인공지능 노트북의 대거 출시 등 긍정적 요소에 힘입어 비즈니스용(1억 6,371만 대, 5.2%↑), 소비자용(8,670만 대, 0.4%↑)의 수요 회복 등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전망
 - (태블릿PC) 2024년 태블릿PC 시장은 수요 정체 등으로 역성장 기조 지속 전망
 - * 전 세계 고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특수 소멸, 노트북·스마트폰으로의 수요 이동 등으로 연속 내림세가 지속될 전망(Gartner, 2023.12월)
 - * 또한 2024년도 애플의 첫 OLED 신제품 출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딘 수요 회복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1억 3,334만 대, △0.7%)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2	-1.2	3.0	4.2	2.8	2.7	1.7	1.1	0.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섬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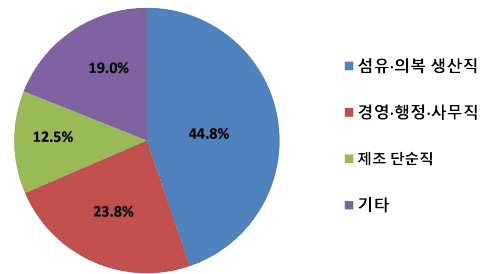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5,279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6%)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기 포천시(3.8%), 경북 구미시(3.6%), 경기 양주시(3.5%), 서울 강남구(3.0%), 대구 달서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4.8%), 경영·행정·사무직(23.8%), 제조 단순직(12.5%)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157천 명) 대비 1.4%, 2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9천 명, 채용인원 7.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6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17.8%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p 낮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6.3%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6%)',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52.3%), 제조 단순직(17.3%), 경영·행정·사무직(14.4%)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39.7%), 경기(23.3%), 대구(9.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26.0%로 높게 나타남

경기전망

- (수출) 중국 및 베트남 등의 경기 성장세 둔화, 소비 위축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기저효과 및 고성능 섬유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
 - (긍정요인)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영향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부정요인)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 고금리·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소비 둔화,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상존,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수출 대체 등
 - * 2024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 전망: 57.5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4%)
- (수입)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수출 증가 예상에 따른 저가의 섬유 원부자재 수입 확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
 - (긍정요인)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중국 중저가 온라인 직구 확대, PF 범용 원사의 국내 공급 감소에 따른 수입 확대
 - (부정요인)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예상
 - * 2024년 상반기 섬유류 수입 전망: 93.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4%)
- (생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생산 감소
 - (긍정요인)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텍스 등 고기능성 섬유 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 (부정요인) 수출 증가세 부진 및 내수 감소,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수익성 악화, 해외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폐업 등으로 생산 감소

* 2024년 상반기 섬유류 생산 전망: 29.1조 원(전년 동기 대비 -3.4%)

● (내수) 경기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섬유 내수는 감소

- (긍정요인)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등

- (부정요인) 국내경기 둔화,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등

* 2024년 상반기 섬유류 내수 전망: 33.5조 원(전년 동기 대비 -2.8%)

< 섬유패션산업 '23년 경기 실적 및 '24년 전망 >

단위 : 백만불(수출입), 십억원(내수·생산), 전년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	12,807	12,301	11,049	5,758	5,623	11,380
	(+14.0)	(-4.0)	(-10.2)	(+2.4)	(+1.5)	(+3.0)
생산	57,867	53,641	54,894	29,050	25,090	54,140
	(+16.3)	(-4.5)	(+2.3)	(-3.4)	(+1.1)	(-1.4)
내수	61,200	64,020	65,344	33,457	31,403	64,859
	(+1.2)	(+2.5)	(+2.1)	(-2.8)	(+1.5)	(-0.7)
수입	18,299	19,901	19,006	9,322	10,197	19,519
	(+12.9)	(+8.8)	(-4.5)	(+1.4)	(+3.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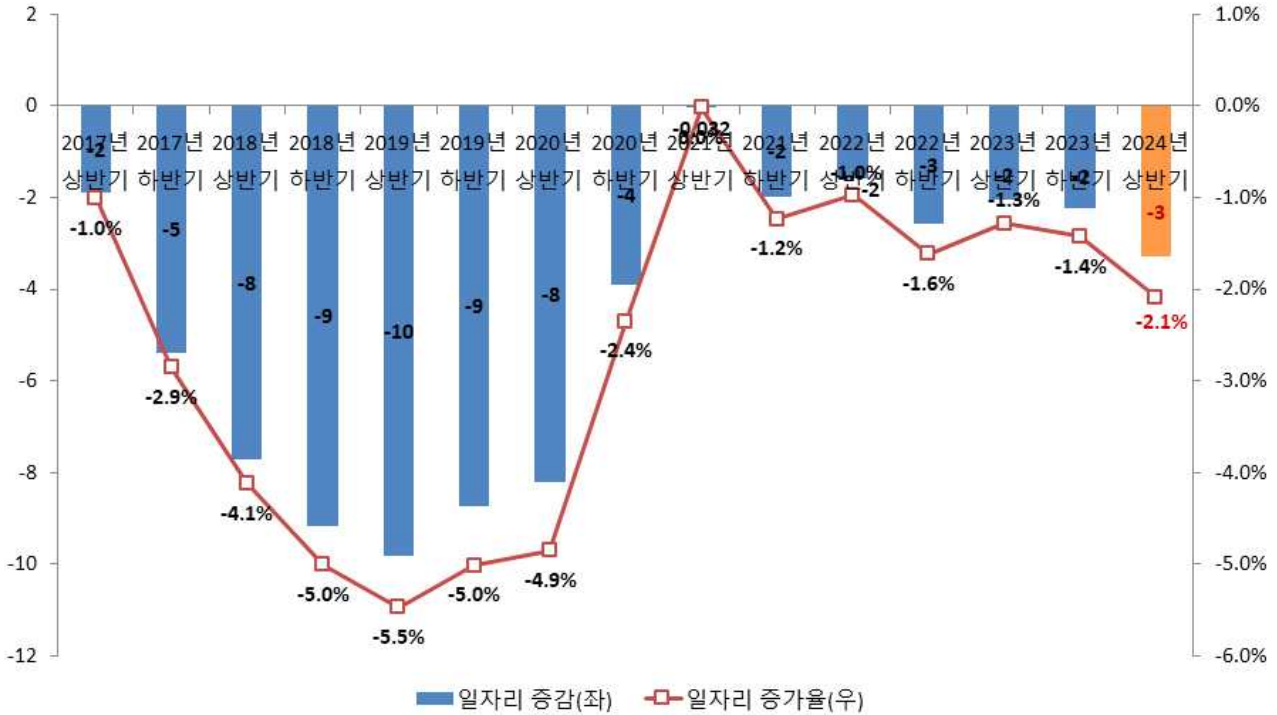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수출입), 산업연구원(생산·내수)

주 : 수출입(심상권 전망), 생산·내수(산업부 전망)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4.9	-2.4	0.0	-1.2	-1.0	-1.6	-1.3	-1.4	-2.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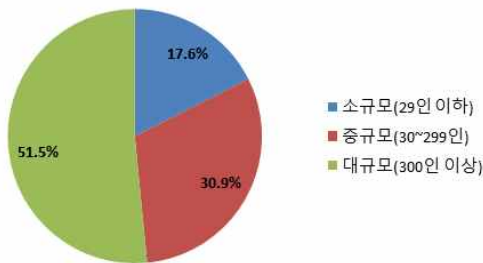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섬유 업종 고용은 2023년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1%(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대구, 울산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쇠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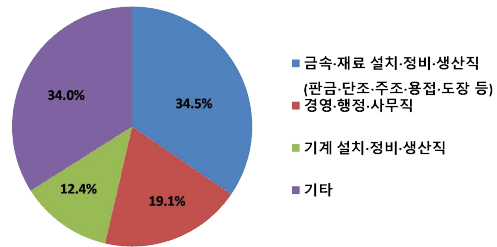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5,279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4.0%), 충남 당진시(11.2%), 경남 창원시 성산구(7.7%),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4.0%), 인천 동구(2.8%), 경기 안산시 단원구(2.8%)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4.5%), 경영·행정·사무직(19.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2.4%)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113천 명) 대비 3.2%,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1천 명, 채용인원 4.1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1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33.4%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21.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1.1%)',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7.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3.6%)'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40.2%), 제조 단순직(27.6%), 경영·행정·사무직(11.3%)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충남(21.1%), 경기(21.1%), 경남(14.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구인 인원 비중이 27.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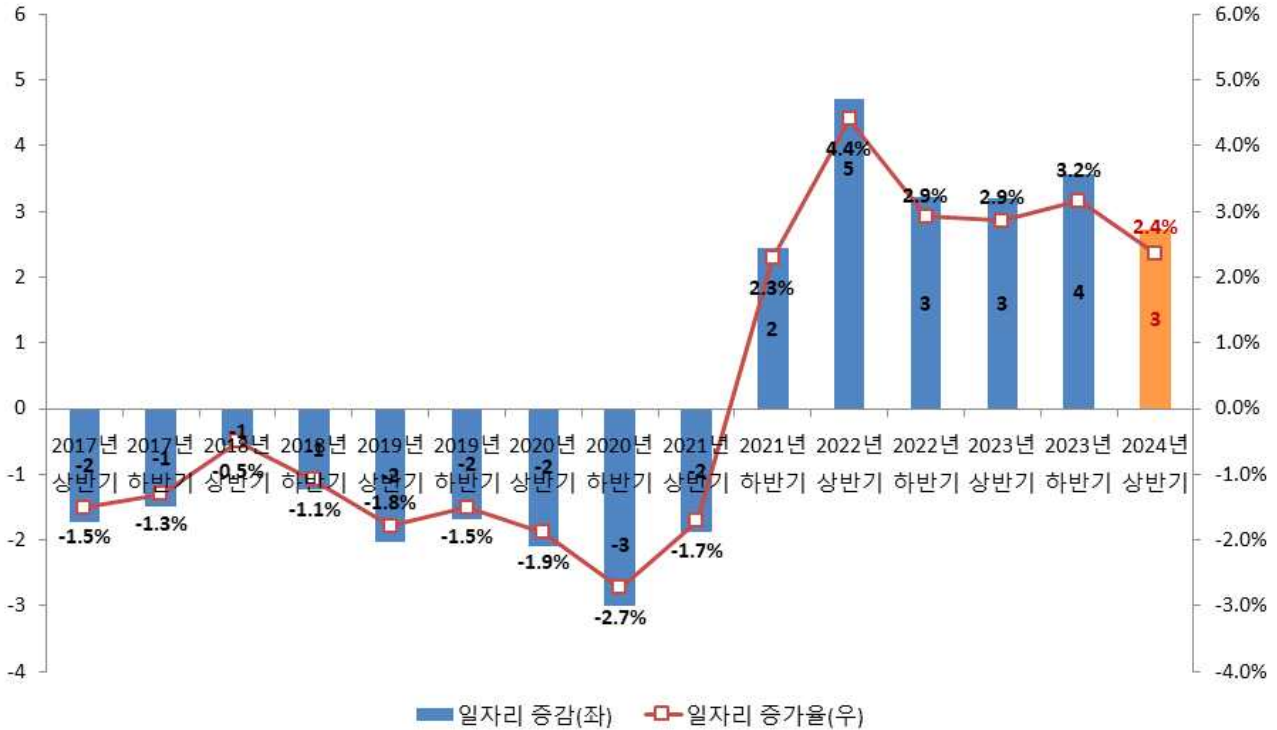
경기전망

- (내수) 건설용 강재 등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수요산업 둔화로 전년 54.9백만 톤 대비 1.3% 감소한 54.2백만 톤 전망
 - (건설) 고금리 장기화 등 건설사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민간 건축 부진과 저성장 기조로 건설투자 소폭 감소 전망
 - (조선) 선별 수주 지속에 따른 조선용 후판 수요 소폭 감소가 전망되며 주력선종의 시황 악화 등 하방 위협 요인 존재
- (수출) 중국을 제외한 인도 등 주요국의 내년 철강 수요 증가로 전년 27.3백만 톤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 전망
- (생산) 전방산업 부진으로 생산은 전년 72.2백만 톤과 유사한 72.0백만 톤 전망
- (수입) 최근 중국산 등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4년은 중국의 수급 불균형 개선으로 전년 15.8백만 톤 대비 1.4% 감소한 15.6백만 톤 전망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9	-2.7	-1.7	2.3	4.4	2.9	2.9	3.2	2.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 충남, 경북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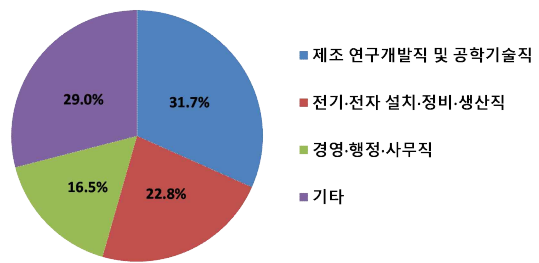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279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8.5%)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5%)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4%), 경기 화성시(9.7%), 충북 청주시 흥덕구(6.2%), 충남 천안시 서북구(5.6%), 경기 평택시(5.4%), 경북 구미시(4.6%), 경기 부천시(4.0%), 충남 아산시(4.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1.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2.8%), 경영·행정·사무직(16.5%)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142천 명)에 비해 2.3%,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7.9천 명, 채용인원 6.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는 1.6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0.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4%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9.0%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9.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8%)'에 이어 '기타(11.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1.8%), 경영·행정·사무직(16.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6.1%)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3.9%), 충남(15.0%), 인천(10.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4.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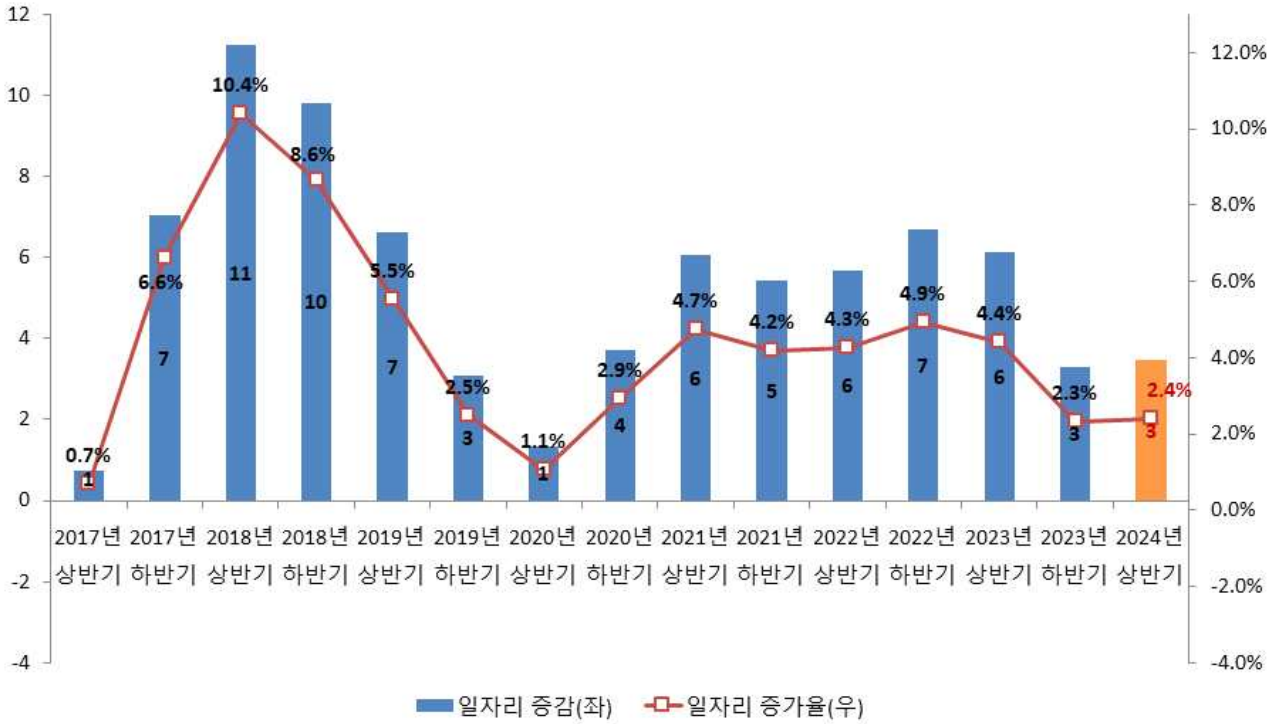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4년 글로벌 시장 전망)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업황 개선과 함께 2023년 5,290억 달러 대비 약 14.1% 성장한 6,035억달러(WSTS/OMDIA/Gartner 3개사 평균전망)로 회복 예상
 - (메모리) 공급조절로 인한 가격 회복과 재고 건전화로 업황 개선되며 2024년 메모리시장은 전년대비 50.9%의 높은 성장 예상
 - *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달러, WSTS): (2020)1,175→(2021)1,538→(2022)1,298→(2023e)896→(2024e)1,298
 - * D램 시장 규모: 2023년 505억 달러 → 2024년 762억 달러 (약 51%↑ 증가 예상)
 - * NAND 시장 규모: 2023년 348억 달러 → 2024년 490억 달러 (약 41%↑ 증가 예상)
 - (시스템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메모리와 달리 시차를 두고 회복세에 진입할 전망으로 2024년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3,577억 달러 예상
 -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억 달러, WSTS): (2020)3,229→(2021)4,021→(2022)4,443→(2023e)4,305→(2024e)4,586
- (2024년 수출 전망) 2024년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전망
 -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2023년 메모리 수출 비중이 감소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고 전년도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IT 수요 회복하면서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664억 달러 전망(2023년 514억 달러)
 - * 메모리 수출비중(반도체 내, %): (2019)67.1 → (2020)64.5 → (2021)64.4 → (2022)57.1 → (2023)52.1
 - (시스템반도체) 지난 3년간 상승한 파운드리 가격은 올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치중 가동률이 개선되며 2024년 수출은 약 4.9% 증가한 451억 달러 예상(2023년 430억 달러)
 - * 시스템반도체 연간 수출액 전망(억 달러): (2020)303 → (2021)398 → (2022)507 → (2023)430 → (2024e)451
- (2024년 투자 전망)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상승 전망
 - 업황 회복 정도에 따라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세대 공정전환과 HBM 등 신규제품 생산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며 공급 조절 예상
 - *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Techinsights, 10억 달러): (2021) 153.1 → (2022) 181.7 → (2023e) 152.2 → (2024e) 158.3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1	2.9	4.7	4.2	4.3	4.9	4.4	2.3	2.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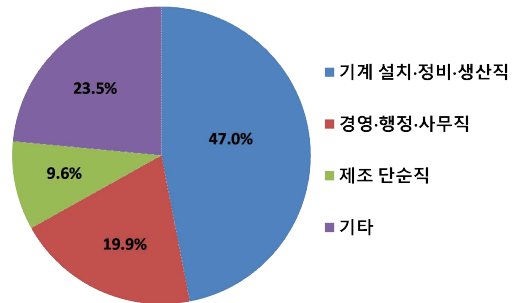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9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15,279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0.7%), 울산 북구(10.1%), 경기 화성시(6.2%), 충남 아산시(5.9%), 경남 창원시 성산구(3.5%), 경기 평택시(3.5%), 경북 경주시(3.4%), 서울 강남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0%), 경영·행정·사무직(19.9%), 제조 단순직(9.6%)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2년 하반기(385천 명) 대비 3.0%, 1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00인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3.1천 명, 채용인원 10.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7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20.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5%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9.1%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6%)',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2.6%)'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3.8%), 제조 단순직(16.4%), 경영·행정·사무직(16.2%)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0.5%), 경북(14.7%), 충남(14.2%)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2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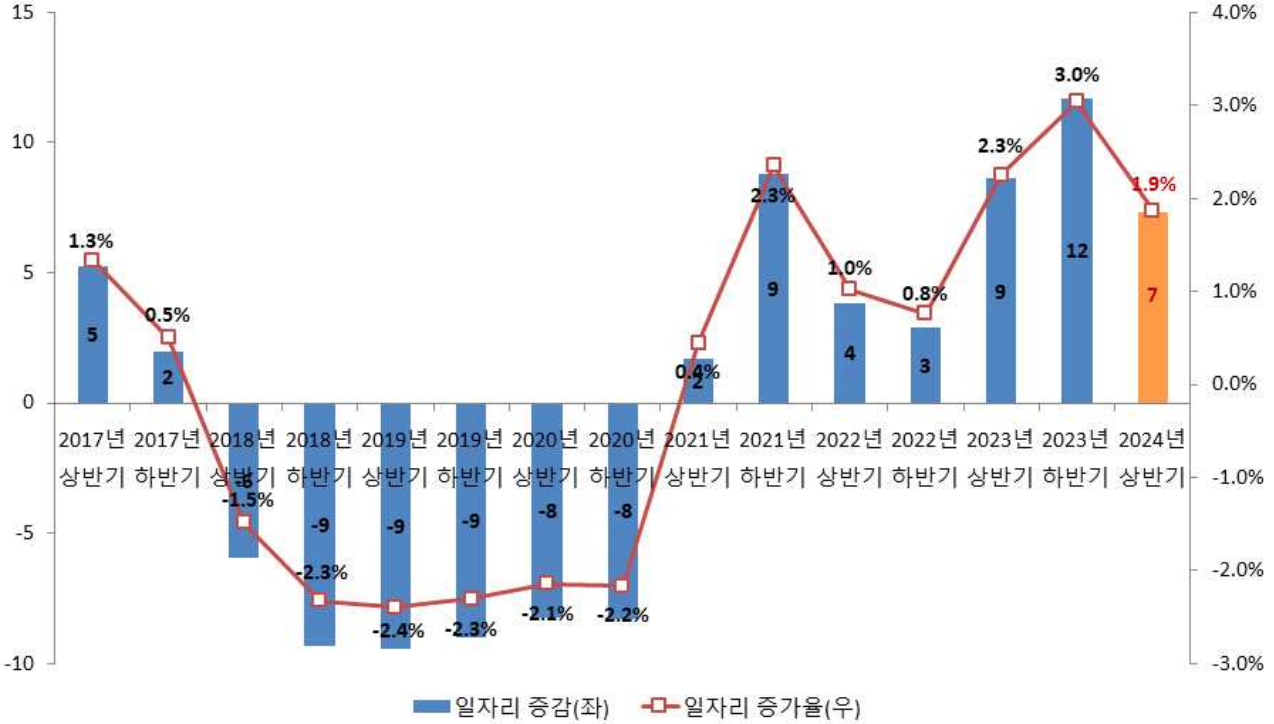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4년 상반기는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고금리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내수 시장은 현상 유지 예상되고 수출과 생산의 경우 2023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일정기간 유지되면서 소폭 증가 기대
 - (내수)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장기화 되어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이 공존하면서 2024년 내수시장은 전년 대비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수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2023년을 시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면서 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평가되며 그간의 신차 대기 수요가 해소되고 미국 등으로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발생하면서 2023년에 큰 폭의 수출 확대를 달성하였고 2024년은 전년도 기조가 유지되지만 역기저효과로 인해 큰 폭의 추가 성장은 기대가 제한되며 소폭 상승 수준으로 전망
 - * 자동차산업 수출액 규모: 2023.1~11월 기준 644.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2.6% 성장
 - * 2023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COVID-19 이전 수준인 9,000만 대 수준 회복 전망(2022년 8,162만 대 → 2023년 9,010만 대 → 2024년 9,220만 대 전망, 한국자동차연구원)
 - (생산) 국내 수요위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로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되며 이로 인한 생산량의 소폭 증가 기대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1	-2.2	0.4	2.3	1.0	0.8	2.3	3.0	1.9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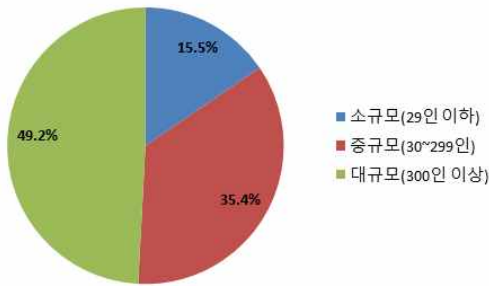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경기, 울산, 서울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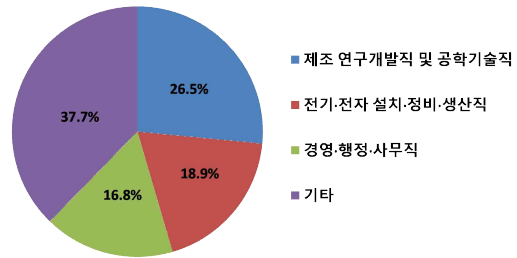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3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49.2%로 절반을 차지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5.5%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5%),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8.9%), 경영·행정·사무직(16.8%)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123천 명) 대비 0.8%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4.5천 명, 채용인원 3.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1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25.4%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3.1%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13.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4.5%)',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1.0%)',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8.0%)'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19.9%),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6.4%),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5.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6.0%), 충남(23.5%), 충북(11.3%)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8.6%로 나타남

경기전망

- (시장) 미래 교체수요 사이클을 앞당겼던 2021년 코로나 발생 이후, 축소되었던 전방 세트산업이 수요회복기를 지나며 2024년 시장 여건은 금년보다 6.7% 증가한 1,238억 달러의 시장규모 예상

* 디스플레이 전체시장에서 OLED 비중은 2023년 35.9% → 2024년 37.0% 증가 전망

** '24년 품목별 OLED 침투율: 스마트폰(90.0%), TV(12.8%), IT(10.6%), 자동차(6.4%)

<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억불, OMDIA) >

구분	LCD			OLED			기타		
	'23년	'24년	증감률	'23년	'24년	증감률	'23년	'24년	증감률
전체	732	766	4.6%	416	459	10.3%	12	13	8.3%
스마트폰 (비중, %)	51 (7.0)	40 (5.2)	△21.6%	342 (82.2)	355 (77.3)	3.8%			
TV (비중, %)	248 (33.9)	261 (34.1)	5.2%	32 (7.7)	38 (8.3)	18.8%	※ OLEDoS(억 달러, yoy(%)) (2023)1.9→(2024)2.6(36.8)		
IT (비중, %)	253 (34.5)	267 (34.9)	5.5%	12 (2.9)	32 (7.0)	167%	※ Micro LED(억 달러, yoy(%)) (2023)0.2→(2024)0.5(98.5)		
자동차(비중, %)	93 (12.7)	97 (12.6)	4.3%	4 (1.0)	7 (1.5)	75.0%	※ 그 외 AMEPD, LCoS, PMLCD, LCoS 등 구성		
기타 (비중, %)	87 (11.9)	101 (13.2)	16.1%	26 (6.2)	27 (5.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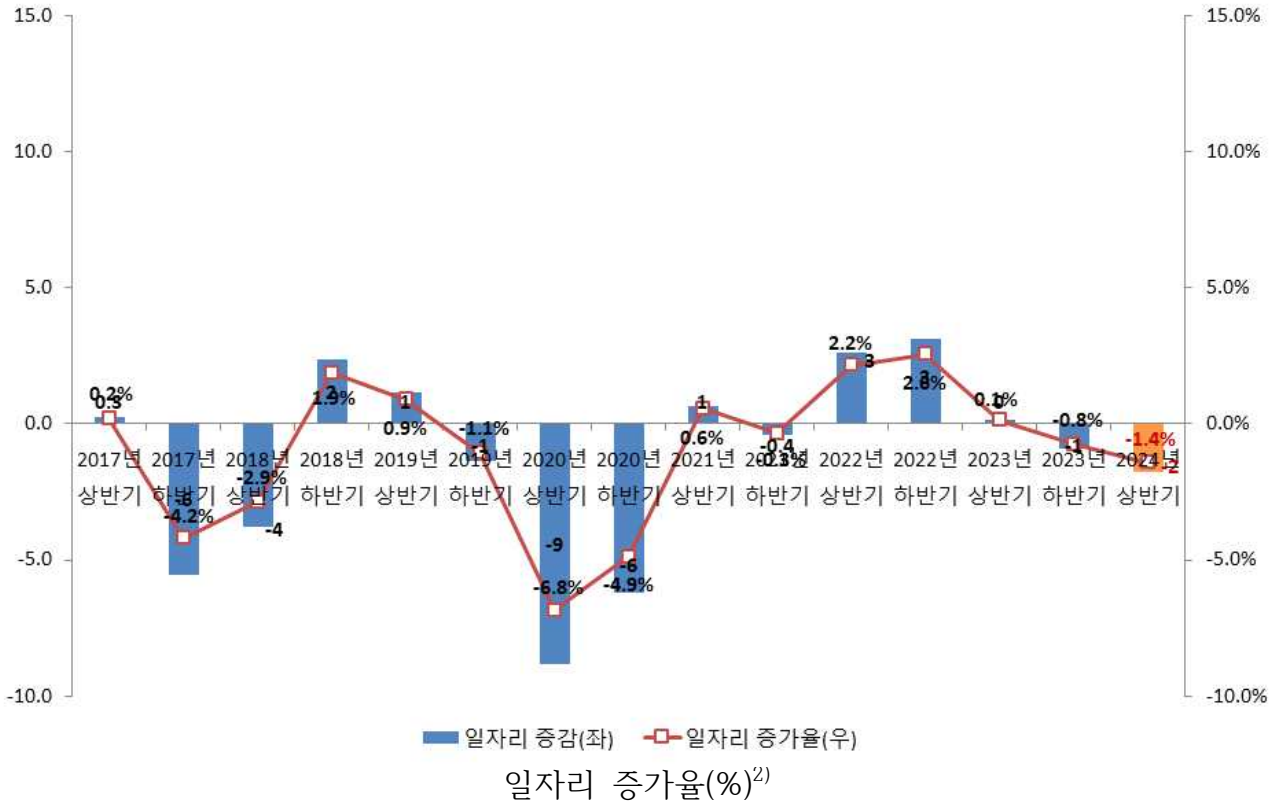
- (TV)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 고금리 기조완화 및 OLED 라인업 확대로 LCD 및 OLED TV 출하량 확대 전망
- (스마트폰) 2024년 OLED 스마트폰 시장은 대형화·폴더블 및 LTPO 등 고부가가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LTPS 및 LCD는 시장축소 예상

- (IT) 아이패드 프로, 게이밍 모니터 등 프리미엄 OLED 제품 라인업 확대 및 OLED 전환 본격화로 IT OLED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 예상
- (수출) LCD 생산 축소 지속, OLED는 TV·IT 적용 확대 및 견조한 고부가가치 모바일 수요로 전년 대비 6.5% 증가한 198억 달러 전망
 - (OLED) 레노버·Dell 등 노트북 제조사의 OLED 제품 출시 확대, 삼성전자의 OLED TV 라인업 확장 및 아이패드 프로 OLED 모델 출시(11인치, 12.9인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 수출 증가 전망
 - *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달러, yoy): [55" OLED TV] (2023) 414 → (2024) 345(△16.7%)
[11" 태블릿] (2023) 77 → (2024) 146
 - (LC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성장 및 전자제품 수요 개선에도 불구,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5% 감소 전망
 - *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달러, yoy): [55" LCD TV] (2023) 121 → (2024) 114(△5.8%)
[9.7" 태블릿] (2023) 28 → (2024) 21(△25.0%)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6.8	-4.9	0.6	-0.3	2.2	2.6	0.1	-0.8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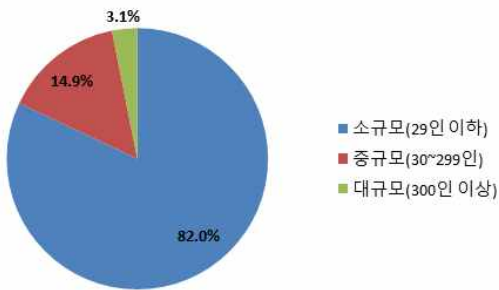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99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북, 충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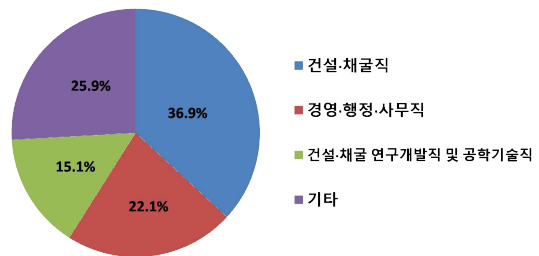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147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603천 명)의 7.5%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36.9%), 경영·행정·사무직(22.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1%)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2,128천 명)에 비해 0.9%, 18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90.7천 명, 채용인원 184.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6.3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3.3%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8%p 낮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8.2%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5.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6%)'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9%)'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69.8%),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7.8%),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5.7%)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20.7%), 경기(16.1%), 충남(12.9%)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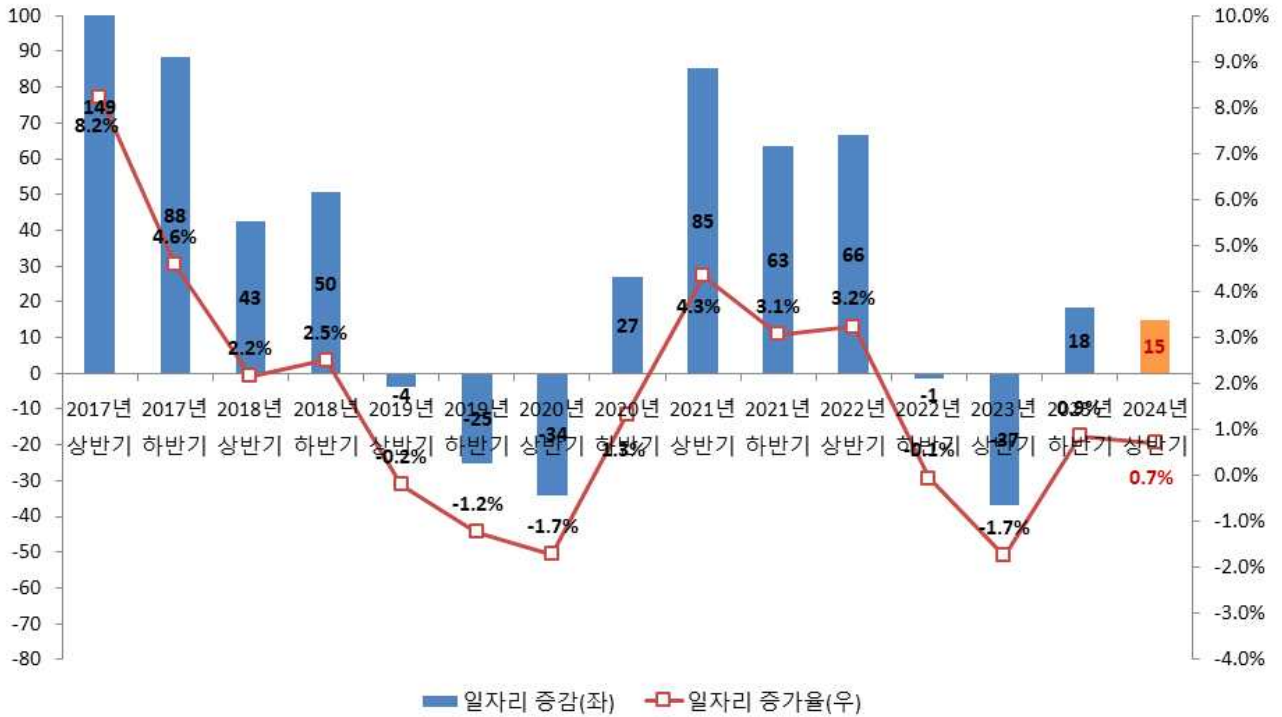
경기전망

- 2024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으며, 건설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
 - 2024년 정부 SOC 예산은 2023년 25조 원에서 26.4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음
 - 2024년 상반기에는 금리 유지 기조,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2026년까지 연평균 1.8%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향후 SOC 예산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동산 PF대출 등 자금 시장 경색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1.7	1.3	4.3	3.1	3.2	-0.1	-1.7	0.9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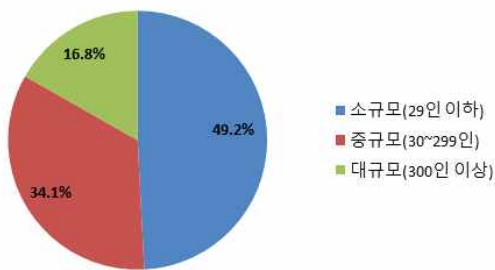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1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5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을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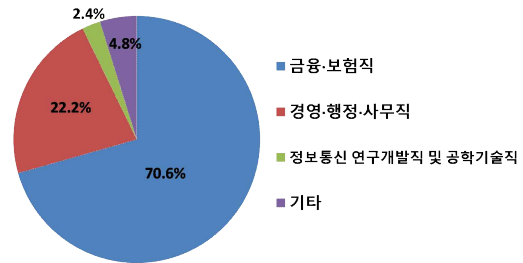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3년 하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80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603천 명)의 2.8%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0.6%), 경영·행정·사무직(22.2%),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4%)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2년 하반기(777천 명)에 비해 0.5%, 4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3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0.4천 명, 채용인원 19.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1천 개
 - 금융 및 보험 업종의 미충원율은 5.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6%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1.5%)과 비교하면 6.0%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2.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8.8%)', '기타(26.3%)'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2.4%), 경영·행정·사무직(19.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5%)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48.0%), 부산(11.1%), 경기(6.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5.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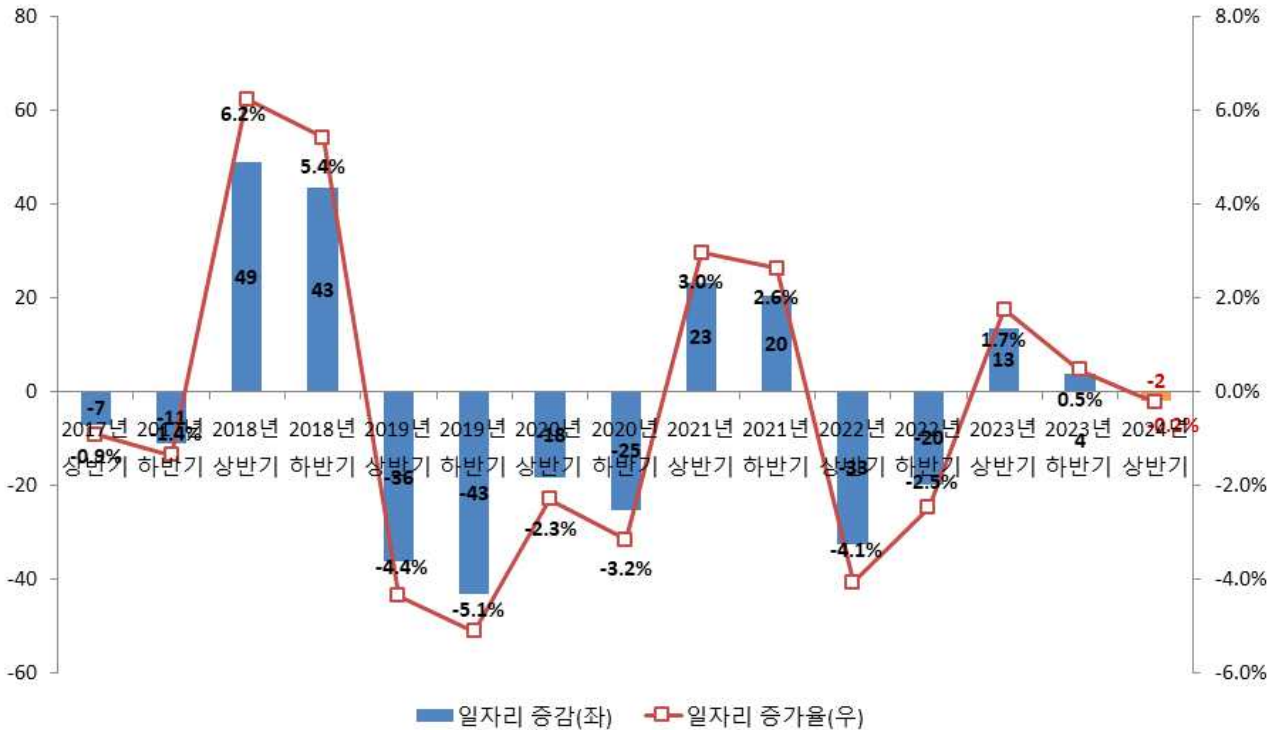
경기전망

- 은행업은 2024년 상반기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금리 상승 영향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하반기에도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
- 보험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가폭 축소로 카드 이용액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증권 산업은 2024년 상반기에 증시가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2.3	-3.2	3.0	2.6	-4.1	-2.5	1.7	0.5	-0.2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4년 상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5인 이상 1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